

<2014년 10월 31일 금요일말씀>

- * 각 교회별로 뜨겁게 찬양을 준비한 후에 말씀을 전한다. (밴드 연주 가능)
- * 초록색 글씨는 힘 있게 전하며 한 손, 혹은 양손 기본 제스처를 한다.
- * 파란색 글씨는 중요한 단어이니, 강조해라.
- * 강조할 때는 소리만 지르지 말고,
강약을 조절하고, 말의 속도를 조절하고, 띄워서 읽기를 하며 심정을 나타내기다.

할렐루야! 금요일 밤입니다.

금요일에는 각 교회별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만,
이번 주 금요일은
얼마 남지 않은 <성찬식>을 준비하기 위한 말씀을 전해 주겠습니다.

섭리사는 2011년부터 <성찬 예식>을 시작했습니다.
매년 11월 둘째 주에 <성찬식>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

<성찬식의 의미>에 대해서는 3년 동안 충분히 말씀해 주었습니다.

오늘은 <성찬식> 전에 마음과 행실을 깨끗이 하도록
성자의 말씀을 전해 주고,
다음 주 금요일은 ‘작년 성찬식 말씀’ 을 듣고,
<섭리사 성찬 예식의 사연>을 다시 한 번 깊이 새기기 바랍니다.

‘작년 성찬식 말씀’ 은 올해 <성찬식>에 참여하는 자들이라면
누구나 필수로 꼭 들어야 됩니다.

<전초>

사람이 살아가다 보면
쓰레기가 생기고 더러워지니 청소해야 하고,
몸에도 노폐물이 쌓이니 꼭꼭 씻어야 합니다.

이와 같이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
마음으로도, 생각으로도, 행실로도 더러움이 꼭 생기게 됩니다.

바로 ‘죄’입니다.

고로 꼭꼭 ‘회개’로 깨끗이 청소하고 씻어 없애고,
자기 ‘마음과 행실’을 다스려야 됩니다.

오늘은 <성찬식> 전에 ‘자기’를 돌아보고,
‘자기 마음과 행실’을 다스려 깨끗하게 하도록
성자가 주신 말씀을 전해 주겠습니다.

오늘 말씀은 <잠언>으로 하나씩 전해 주며,
귀에 쪽쪽 들리고 마음에 쪽쪽 새기도록 해 주겠습니다.

말씀이 짧으니 한 잠언, 한 잠언 마음에 쪽쪽 새기면서 듣기 바랍니다.

<말씀 시작>

* 말씀 시작하겠습니다.

◆ <죄>를 <생활>로 합리화하지 말아라.

- ◆ <죄>와 <생활>과 <의>는 엄격히 구분되어 있다.
- ◆ <생활>도 ‘부부생활’ 따로 있고, ‘가정생활’ 따로 있고,
‘학교생활’ 따로 있고, ‘의로운 생활’ 이 따로 있다.
- ◆ <의>도 ‘생활의 의’ 가 따로 있고,
‘하나님을 향한 의’ 가 따로 있다.
- ◆ <자기 육신을 위한 생활의 의>는 자기 육신이 받고 끝나고,
<하나님을 향한 의>는 자기 육신도 받고 자기 영혼도 영원히 받는다.
- ◆ <죄>인데 <생활>로 합리화하면 ‘죄’ 로 여기지 않는다.
그렇다고 ‘죄’ 가 안 되고, ‘짓값’ 을 안 받겠느냐.
- ◆ <이성 죄>에서도
‘자기 마음으로 생각하고 끝나는 자체 죄’ 가 있고,
‘생각한 것을 행실로 옮기는 상대적인 죄’ 가 있다.
- 또한 같은 <이성 죄>에서도
‘자기가 원하여 짓는 죄’ 가 있고,
‘상대에게 당하여 짓는 죄’ 가 있다.
- 같은 <이성 죄>라도 하나님은 달리 처리하신다.
- 하나님의 법을 알면, ‘죄’ 를 안다.
- ◆ 작아도 ‘사람’ 이듯, 작아도 ‘죄’ 다.
- ◆ 글씨가 작아도 ‘글씨’ 이듯, 작은 죄도 ‘죄’ 다.

- ◆ 영계에서 보면
‘음란한 마음, 음욕, 자위행위’ 도 다 **잡초다. 가시나무다.**

뽑아내지 않고 잘라내지 않으면, **잡초와 가시나무**로 뒤덮여 버린다.
- ◆ 뱀이 작아도 ‘뱀’ 이듯, 이같이 작은 죄들도 다 ‘죄’ 다.
- ◆ 암덩어리가 작아도 빨리 떼어 내야 하듯이,
죄가 작아도 빨리 회개하여 깨끗하게 해야 된다.
- ◆ 암덩어리가 작다고 해서 치료하지 않으면
커져서 결국 목숨을 앗아가듯이,
죄가 작다고 회개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.
- ◆ ‘육의 마음과 행실’ 이 깨끗해야 ‘혼과 영’ 도 깨끗하다.
- ◆ ‘육의 마음과 행실’ 이 100% 깨끗해야
속사람인 ‘혼체’ 도 ‘영체’ 도 깨끗하다.
- ◆ ‘자기 혼과 영’ 이 어떤지 잘 모르겠으면,
‘자기 육신의 마음과 행실’ 을 보아라.
- ◆ ‘자기 육신의 마음과 행실’ 이 어떤지 잘 모르겠으면,
‘자기 혼’ 을 통해서 보아라.
- ◆ 성자는 ‘혼’ 을 통해 ‘그 마음과 행위’ 가 어떠한지 계시해 주신다.

<잠시 쉬었다가>

- * 계속해서 <잠언>으로 성자의 말씀을 전해 줄 텐데요,
잘 기억하도록 화면을 보면서 말씀해 주겠습니다.
마음에 쪽쪽 새겨듣기 바랍니다.

(* 화면을 보겠습니다.) <영상1>

* 강약을 조절하며, 한 잠언, 한 잠언 힘 있게 전한다. (초록색 글씨 강조하며 기본 제스처)

- ◆ **틈을 주는 것이 사탄이 올 기회를 주는 것이다.**
- ◆ **틈을 주는 것은 사탄에게 마음 문을 열어 주는 격이다.**
- ◆ 사탄이 꾀지 않아도 ‘자기 스스로’ 죄를 짓기도 하고,
사탄이 꾀어 ‘뾰를 받고’ 죄를 짓기도 한다.
- ◆ ‘어둠과 빛’을 구분하듯이, ‘죄와 의’를 구분해라.
- ◆ <생각>에서부터 ‘죄’나, ‘의’나 갈려 간다.
- ◆ <생각>에서 ‘죄’를 안 지으면, <행실>도 ‘죄’를 안 짓게 된다.
- ◆ 죄 쪽을 향한 생각의 문, 마음의 문은 아예 없애고,
그곳에 벽을 만들어라. <끝>

- * 계속해서 말씀하겠습니다.

◆ <죄>는 ‘자기 생각, 자기 주관, 자기 행위’ 로 짓게 되니,
얼마든지 자기가 차단하고 죄를 안 지을 수 있다.

◆ ‘자기는 허락하지 않았는데 상대방부터 당하여 억지로 짓는 죄’ 와
‘자기가 동요되어서 허락하고 짓는 죄’ 는 완전히 다르다.

(* 다시 화면을 보면서, 말씀해 주겠습니다.) <영상2>

* 강약을 조절하며, 한 잠언, 한 잠언 힘 있게 전한다. (초록색 글씨 강조하며 기본 제스처)

◆ 누구에게나 ‘동서남북의 문’ 이 있다.

① 마음의 문, ② 정신의 문, ③ 생각의 문, ④ 행실의 문이다.

‘동서남북의 성문’ 을 닫아 놓고, 필요할 때만 열어 놓고 써라.

◆ 또한 누구에게나 ‘동서남북의 문’ 이 있다.

① 육의 문, ② 마음·정신·생각의 문, ③ 혼의 문, ④ 영의 문이다.

‘동서남북의 문’ 을 항상 단속해라. <끝>

◆ <문>은 ‘자기’ 가 열고 닫는다. <생각>으로 열고 닫는다.

고로 <생각>에서 ‘죄’ 를 안 지으면,

<행실>도 ‘죄’ 를 안 짓게 된다는 것이다.

(* 다시 화면을 보겠습니다.) <영상3>

* 강약을 조절하며, 힘 있게 전한다. (초록색 글씨 강조하며 기본 제스처)

◆ <눈>은 ‘자기’ 가 감고 뜨듯이,

<마음의 문, 생각의 문>도 ‘자기’가 얼마든지 열고 닫는다.

자기 책임이다.

- ◆ 누가 어떤 말을 해도 <귀의 문>은 ‘자기’가 얼마든지 열고 닫아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다.

이와 같이 <마음 문, 생각 문>도 ‘자기’가 얼마든지 열고 닫는다.

<끝>

- ◆ <사랑 문>도 자기가 얼마든지 열고 닫을 수 있다.

고로 자기가 행한 것은 자기가 책임지는 것이다.

- ◆ <말문>도 자기가 얼마든지 열고 닫을 수 있다.

고로 자기가 한 말은 자기가 책임지는 것이다.

(* 화면을 보겠습니다.) <영상4>

* 초록색 글씨 강조하며 기본 제스처

- ◆ ‘마음의 문, 행실의 문, 귀의 문, 말문, 사랑 문’ 단속이다.

성자에게 물어보고 열고 닫아라. <끝>

<잠시 쉬었다가>

* 계속해서 하나하나 마음에 쏙쏙 새기면서 잘 듣기 바랍니다.
조금 더 말씀하고 마칩니다.

* 강약을 조절하며, 한 잠언, 한 잠언 힘 있게 전한다. (초록색 글씨 강조하며 기본 제스처)

◆ <죄>는 ‘사탄의 것’ 이라서, 죄를 지으면 사탄에게 걸린다.

◆ 항상 사탄을 공격하여 이겨라!

안 그러면, 사탄이 ‘너의 몸’ 을 쓰고 들어온다.

◆ 사탄도, 악한 마음도, 불의한 마음도, 죄의 마음도

‘너의 마음과 생각’ 을 쓰고 들어온다.

‘네 마음과 생각의 문’ 을 열어 주는 만큼만 들어온다.

고로 ‘네 마음의 문, 생각의 문, 행실의 문, 사랑의 문’ 을
절대 열어 주지 말아라.

(* 화면을 보면서, 오늘의 마지막 말씀을 듣겠습니다.

잘 듣기 바랍니다.) <영상5>

* 강약을 조절하며, 힘 있게 전한다. (초록색 글씨 강조하며 기본 제스처)

◆ 폭력배 괴물 마귀가 대문 앞에 앉아 있다.

물을 뜨겁게 펄펄 끓여서 위의 창문을 열고,

대문 앞에 앉아 있는 괴물에게 쏟아 부어라.

뜨거운 물이 무엇이냐?

나 성자와 하나 된 너의 뜨거운 마음과 생각이다!

◆ 마귀가 대문 앞에 앉아서 네가 문을 열면 들어오려고 한다.

음모를 꾸며 악한 자의 육신을 가지고 들어오려고 한다.

어서 창문을 열고 ‘생각의 화살’ 을 쏘라!

- ◆ 너의 방문 뒤에 사탄과 사탄이 쓰는 자들이 대기하고 있다.

어서 문틈으로 ‘너의 마음과 생각의 검’ 으로 찍어라!

그러면 사탄과 악한 자들이 쪽 뺨고 고통 받고 도망간다.

사탄을 이기고, 나 성자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라! <끝>